

전남 마을기업 선정·관리 부실 투성이

부당한 사업계획 보조금 챙기고 자부담 규정 안 지켜, 8개 시·군 73곳 감사서 부적정 사례 25곳 적발

친족이나 인척으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들이 마을기업으로 선정되거나 부당한 사업계획을 토대로 보조금을 받아 챙기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자부담 규정도 지켜지지 않고, 장기 매출실적이 없이 방치되거나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등 '부실한' 마을기업들이 전남도 감사에 적발됐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2015년에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보조금)를 실시했거나 2016년에 종합감사를 실시한 시·군을 제외한 나머지 8개 시·군 마을기업 73곳을 대상으로 추진실태를 점검했다. 73곳 가운데 34%에 해당하는 25곳에서 문제점이 지적됐다. 전남도내 22개 시·군에서 운영되

는 마을기업이 모두 181곳이다. '마을기업 육성 시행지침'에는 특정 1인이 사업을 주도해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취약한 단체는 마을기업 선정에서 제외하고, 법인의 경우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 지분의 합이 50%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A영농조합법인은 출자자 5인 중 4인이 인척관계이고, 실태조사에서도 대표자 1인이 주도하는 기업인 것을 알 수 있었는데도 2012년 마을기업으로 선정돼 보조금 3000만원을 받았다. 지난 2010년 B어촌계에서 분재 생산·전시·판매를 위해 '분재전시관 건립'사업계획을 제출했으나, 해당 지역은 다도해국립공원지역으

로 이 같은 행위는 금지돼 있었다. 1억원의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유리온실은 방치 상태다.

2012년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C영농조합법인은 2차례 보조금 수령 후 통장을 개설해 자부담 1300만원을 입금한 뒤 다시 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하기도 했다. 연 1회 마을기업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보조금 취득 물품은 미사용 방치 등의 경우 즉시 환수하는 한편 계속 관리가 어려울 경우 매각해 분담비율에 따라 귀속하도록 규정도 지켜지지 않았다.

D영농조합법인은 2013년 보조금 2000만원을 지원받으면서 자부담 511만원을 주민 동의 없이 마을기업에서 임의 충당하는 등 주민 간 갈등으로 사업개시를 못하고 있는데도 보조금 1700만원으로 취득한 분쇄기 등 장비를 3년째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영농조합법인에서는 영업 등록도 없이 지난 2014년 3월 관광객 등에게 된장 65개(1kg 용기)를 팔고, 현재도 된장 제조 용으로 숙성중인 항아리 34개를 판매할 예정이었다.

이 외에도 수산물가공업, 식품산업진흥법, 건축법 등의 위반 사례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승인 없이 담보로 제공하거나 부적정하게 수익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사례도 드러났다.

전남도 감사관실은 이에 대해 각 시·군에 잘못된 부분의 시정과 담당공무원 등의 훈계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포함된 지역에 분재 생산·전시·판매를 위한 '분재전시관 건립'사업계획을 승인한 신안군에 대해서는 기관경고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인화학교 부지에 장애인 인권타운 건립

직업교육·문화시설 들어서

영화 '도가니'의 실제 무대였던 광주 인화학교 부지에 장애인 인권복지타운(가칭)이 건립된다. 광주시는 28일 인화학교 부지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5차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부지에 장애인 인권복지타운을 조성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논의 대상 시설은 장애인을 위한 직업교육시설, 연수원 형태의 복지관, 인권관, 문화시설 등이 들어선다. 장애인 수련시설만 제외된 셈이다.

광주시는 TF팀의 이같은 제안내용을

반영해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를 확보할 예정이다. 내년에 용역에 들어가 구체적인 사업 모델을 도출한 뒤 이르면 내년년부터 조성사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인화학교는 일부 교직원들의 청각장애 학생 성폭행 등 실화를 담은 공저작 '도가니'가 영화로 만들어지면서 전국을 분노로 들끓게 했다. 학교는 2011년 문을 열었지만 법인 정상설치를 위한 자금 조달이 지연되면서 2014년 마무리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성폭행 등 청각장애 학생 인권유린의 아픔을 치유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인권관 등 들어설 계획이다"며 "모두가 더불어 하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권열기자 cki@kwangju.co.kr

"지역전략산업 관련기업, 4차산업혁명 대비를

전남, 드론 활용도 가장 높아 경쟁력 강화해야

광주전남연구원 지적

광주전남연구원 연구원 등 지역전문가들이 지역전략산업의 '4차 산업혁명'을 위해 지역전략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 수소 및 전기차 고속도로 전용차선 주행 허용 등 규제 철폐 및 개선, 농림수산업에서의 드론 활용 제고, 에너지산업 개척 등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28일 광주전남연구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역전략산업 추진방향'을 특집주제로 계간지 '광주전남연구'를 발간했다. 이번 논문집은 5편의 특집주제 논문과 3편의 일반논단으로 구성됐으며, 국내외 정책동향 및 실태를 면밀히 검토하고, 그에 따른 지역발전방향을 밀도 있게 담았다.

산업연구원 장석인 선임연구원은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지역전략산업 발전방향'에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향후 중장기 산업발전 전략을 수립할 경우 앞으로 전개될 4차 산업혁명의 본질과 특징, 영향과 도전과제를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역전략산업에 진입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과감한 투자를 유도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고 지역발전을 주도할 인재 유인을 위한 인프라와 지원제도를 구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테크노파크 최전 차세대자동차 전장부품생산지원센터장은 "지역전략산업으로서 전환경제자동차산업 육성 방안"에서 "전기자동차, 수소연료전지자동차에 지능·자율형 시스템이 접목되는 기술개발과 육성정책이 수립돼야 한다"며 "빛그린, 진곡, 하남, 평동, 첨단산단을 중심으로 규제프리존 내에서 병설충전소 규제 개선, 수소 및 전기차 고속도로 전용차선 주행 허용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초당대 운영원 교수는 "드론산업 추진을 통한 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에서 "세계 민수용 드론 시장의 80% 이상이 농림수산업 분야에서 수요 창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전남은 드론의 활용도가 가장 높은 유망지역으로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세계청년축제 플래시몹

28일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2016 세계청년축제' 개막식에서 27개국 청년 350명이 참여한 가운데 플래시몹이 펼쳐지고 있다. 청년축제는 30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대에서 진행된다. /최해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 광산구·북구 공무원 절반이 여성

광주시청 여성비율 21.8%, 전남도청은 14.7% 불과

행자부 '지방 여성공무원 통계'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3명 중 1명은 여성이며 6급 이상 여성공무원이 20년 만에 10배 늘어 양적·질적 성장을 보였다.

또 광주지역 구청 공무원 10명 중 4~5명, 전남지역 시군청 공무원 10명 중 3~4명은 여성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광주시청과 전남도청 공무원 중 여성비율은 각각 21.

8%와 1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행정자치부가 공개한 '지방 여성공무원 인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지방공무원 29만6273명 가운데 여성은 9만9865명으로 33.7%를 차지했다.

지자체 공무원 중 여성 비중은 1995년 19.6%에서 2000년 22.1%, 2005년 26.5%, 2010년 29.8% 등으로 꾸준히 높아졌다. 지난해 여성공무원 수는 20년 전인 1995

년 5만4472명의 2배 수준이다.

광주 공무원 7241명 중 여성은 2548명으로 35.2%를 차지했으며 광주시청 공무원 3262명 중 여성은 710명(21.8%)에 불과했다. 광산구의 경우 전체 공무원 923명의 48.2%인 445명이 여성으로 광주·전남 지역 자치단체 중 가장 여성공무원 비율이 높았다. 이어 북구가 48.1%, 남구 45.

9%, 서구 45.5% 순이었다. 동구는 21.8%에 그쳤다. 전남은 전체 공무원 2만332명 중 6638명(32.6%)이 여성이었으며 전남도 본청 공무원 4016명 중 여성은 589명(14.7%)에 불과했다.

일선 시군에서는 장성군이 558명 중 243명(43.5%)이 여성공무원으로 가장 여성공무원 비율이 높았으며 담양군(43.4%), 화순군(42.4%), 순천시(41.5%)가 뒤를 이었다. 진도군 여성공무원 비율이 가장 낮아 505명 중 135명(26.7%)이 여성이었다.

여성공무원의 증가는 여성채용목표제와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도입, 시간선택제 채용 등에 따라 신규와 경력직 여성공무원 채용 비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전남 수산업경영인 지원센터 목포에 개소

전남 수산업경영인 배출의 산실이 될

전남 수산업경영인 종합지원센터가 28일 목포 북항 배후부지에 새롭게 문을 열었다.

전남도는 이날 오전 목포 죽곡동에 총면적 1740여㎡, 3층 규모의 전남도 수산업경영인 종합지원센터를 준공하고 개관식을 개최했다. 개관식에는 김갑섭 전남도 행정부지사과 박홍률 목포시장, 권옥 도의회 부의장, 정연선 도의회 농림해양수산위원장을 비롯해 수산업경영인 200여 명이 참석했다.

수산업경영인 종합지원센터는 전남도가 2011년부터 건립 필요성을 해양수산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2013년 국비 20억원을 확보해 건립이 추진됐다. 2013년 12월 공사를 시작해 2015년 12월 완공하고 (사)한국수산업경영인 전라남도연합회가 관리와 운영을 맡아 이날 개관식을 하게 됐다. 센터에는 수산업경영인 전남도연합회 사무실과 수산물 직판장, 홍보전시실, 어업인 교육실 등으로 구성됐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2016학년도 후기 광신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모집

원서 접수 2016. 8. 8(월)~18(목)
 전형일시 2016. 8. 22(월) 오후 2:00
 합격자 발표 2016. 8. 24(수) 오전 10:00 예정
 등록금 납부 2016. 8. 24(수)~25(목)

▶ 모집학과 및 인원

대학원	과정 (수업연한)	학 과	모집 정원
일반대학원	석사(4학기)	신학과(Th.M.)	0
		유아교육학과(M.Ed.)	0
신학대학원	석사(6학기)	신학과(M.Div.)	0
음악대학원	석사(4학기)	실용음악학과(M.A.)	0

사랑과 감사의 62년 1954~2016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2016학년도 후기 광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편입생 모집

지원 지역 -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신학 관련 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 아래 세부 지원자격에 해당되는 자(단,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신학연구(학)과(M.A.T.) 재학, 수료, 졸업자 포함)
 - 2학년 0명(주·야) 2학기 이상 수료 및 30학점 이상 취득자
 - 3학년 0명(주·야) 4학기 이상 수료 및 60학점 이상 취득자

입학문의 ▶ 062)605-1115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학지로 36

청(靑)소년 예비전문가를 위한 다같이·즐겁게·모이자·모이자·모이자

교육일시 ▶ 오픈강의(1회) : 2016년 9월 24일(토) 14:00 ~
 ▶ 청다락방 본강의(4회) : 2016년 10월 8일(토) ~ 10월 29(토) 매주 토요일 14:00~

장 소 광신대학교 국제관 1층 국제회의실

수 강 료 무료

신청문의 ▶ 오픈강의(생명사랑지킴이 양성교육) : 학생상담센터 062)605-0903 E-mail : flyhigh132@naver.com
 ※ 2016. 9. 8(목)까지(신청기한임수)
 ▶ 청다락방 본강의(4회) : 평생교육원 062)605-1112, 1063

강의일정 ▶ 오픈강의 : 2016. 9. 24(토) 14:00 ~ "생명사랑지킴이 양성교육"
 ※ 보건복지부·중앙시설예방센터(3시간) 수료증 발급

▶ 청다락방

회기	일 정	주 제	강사
1	10월 8일	청소년정서코칭	조영미
2	10월 15일	청소년은 꿈쟁이! & 오투이!	안창현
3	10월 22일	청소년 게임 놀이치료	임은경
4	10월 29일	미술치료의 실제	이정은

▶ 주 최 : 광신대학교 상담치료대학원 청소년상담지도학과
 ▶ 주 관 : 광신대학교 평생교육원